

역학 II(건강행태/보건지표)			번호: II - I - 5			
제 목	국문	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				
	영문	A Study for Effects of Economic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to Suicide Rate in Korea	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박종순, 이준영, 김순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	
	영문	Jong Soon Park, June Young Lee, Soon Duck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				
분 야	역 학 기타	발 표 자	박종순 일반회원			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	
1. 연구의 목적						
<p>200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보도된 우리나라의 10대 사인중 자살은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는 1991년 9.1%에서 2001년에는 15.5%로 최근 10년간의 어떠한 사인보다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.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,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물다.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이 전체 자살률, 20세 이상의 자살률과 20세 미만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, 향후 자살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</p>						
2. 연구방법						
1) 연구자료						
<p>통계청의 연도별 사망원인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십만명당 자살률과 실업률(%),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국내총생산(Gross Domestic Product: GDP)의 전년대비증감률을 경제성장률의 지표로 사용하였다. 국내총생산(GDP)은 불변금액과 경상금액으로 나뉘어지는데, 본 연구는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는 경상금액(실질금액)을 사용하였다.</p>						
2) 분석방법						
<p>회귀모형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오차들 자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는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자기회귀모형의 계수추정방법으로는 최대가능도 추정법을 사용하였고, 최종적으로 남은 잔차들의 자기상관존재여부를 보기 위하여 더빈-왓슨 검정(Durbin-Watson test)을 실시하였으며, 모든 통계분석은 SAS 8.0/ETS의 AUTOREG 프로시저를 사용하였다.</p>						

3. 결과

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각각은 전체 자살률에 대해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($p<0.001$), 이들은 각각 81.5%와 82.6%의 설명력을 보였다.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는 90.5%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. 전체 자살률과 경제성장률의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를, 실업률의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. 20세이상의 자살률에 대한 경제성장률($p<0.001$)과 실업률($p<0.001$) 각각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($p<0.001$),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각각은 86.5%와 87.9%의 설명력을 보였다. 20세미만의 자살률에 대한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($p<0.05$), 38.4%의 설명력을 보였다. 실업률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($p>0.05$).

4. 고찰

본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경제와 자살이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.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의 증가는 산업화, 도시화, 핵가족화 내지 가족해체, 노령화 등 최근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정신건강의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. 특히 1998년에 보여진 급격한 자살률의 증가는 1997년말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경제위기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.